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미디어콘텐츠	이름	김xx
파견국가	스페인	파견도시	라스팔마스
파견대학	Universidad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파견기간	2018/08/22 ~ 2019/06/26
귀국여부	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ULPGC(Universidad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는 Tafira캠퍼스와 Obelisco 캠퍼스로 나뉘져 있습니다. 경영학, 관광학 등은 Tafira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타피라 캠퍼스는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버스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타고 가야합니다. 타피라캠퍼스는 ULPGC의 본캠퍼스로 캠퍼스자체가 굉장히 크고 도서관부터 모든 시설들이 세련되고 큼니다. 오벨리스코 캠퍼스에서는 스페인어, 철학, 스페인어 수업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내와 버스를 타고 10분정도 타고 가야하기 때문에 타피라 캠퍼스보다 비교적 가깝습니다. 건물은 타피라캠퍼스에 비해 작지만 국제교류처 사무실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처 직원은 교환학생들에게 매우 예의가 없으며 신경질적이기 때문에 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교류처 조교들 또한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저희 과(미디어콘텐츠)와 완벽하게 대체되는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영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표를 정하기 전에 학교자체에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수업, 스페인어로 들을 수 있는 수업 리스트를 나눠줍니다.</p> <p>이 대학교 교수님들은 생각보다 FAIL을 쉽게 줍니다. 그 대신 재시험의 제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재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재시험을 보기 전 매주 교수님과 일대일 과외를 통해 재시험을 힘들게</p>

	<p>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치십니다.</p> <p>또한, 교환학생이라면 스페인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단계는 A1, A2, B1, B2 난이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학기에는 A2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스페인어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스페인어 수업은 100% 스페인어로 진행되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노래 등을 통하여 스페인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또한, 스페인어 수업을 통해 많은 에라스무스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스페인어 교수님께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국인들을 잘 챙겨주시고 한국문화를 이해해주십니다. 모든 시험은 평균 5점 이상을 넘어야 패스할 수 있습니다.</p>
<p>2019-1학기 수업</p>	<p>두번째 학기때는 축구&농구 수업과 스페인어 수업, 영화 수업, 문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때 당시 유럽챔스 시기였기에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축구&농구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스페인어로 100% 진행되어 많이 힘들었지만 교수님과 친구들이 매 수업마다 도움을 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p> <p>스페인어 수업은 B1로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반에서 가장 스페인어를 못 했지만 교수님께서 뒤쳐지지 않게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어렵지 않게 수업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p> <p>영화 수업은 그나마 제 전공과 비슷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세이 한편과 시험 한번을 보는데 시험범위 굉장히 많아 공부할 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p> <p>문학 수업은 두 번의 에세이로 평가되는데 미국 문학 시와 극본을 공부합니다. 가장 지루한 수업이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초반에 이메일로 장소와 시간, 날짜를 보내줍니다. 그 날짜에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가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어떤 외딴 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자 ULPGC 가방, 티셔츠, 모자, 펜 등을 나눠주고 수강신청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공지사항을 다 알려준 다음 카나리아 전통음식인 감자요리와 빠에야를 먹었습니다.</p> <p>ULPGC는 버디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ULPGC는 그 외에도 교환학생들을 위한 서핑, 요리, 가라오케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p>

	<p>있습니다.</p> <p>국제교류처는 아까 말했듯이 오벨리스코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처 담당자 자체가 매우 무섭고 예의가 없어 메일로 질의하는 것이 더욱 편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날씨는 신기할 정도로 항상 맑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항상 화창한 날씨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유럽보다 아프리카에 가깝다 보니 사계절이 없고 거의 여름만 존재합니다.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 시기에는 가벼운 점퍼 혹은 맨투맨만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덥지도 않아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라스팔마스는 스페인 본토에 비해 안전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밤 늦게 (새벽 3시 혹은 4시) 집에 혼자서 귀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축제기간에는 취객이나 청소년들이 시비를 걸거나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빠른 귀가나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와 대학교가 너무 외곽에 있어 에라스무스 학생들(유럽내 교환학생) 전반적으로 플랫폼하우스를 구해 생활합니다. 제가 살았던 숙소는 라스팔마스의 중심부(Mesa y Lopez)로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비쌌으나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플랫폼하우스들은 동성 혹은 혼성으로 사는 곳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p>

	<p>혼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저 혼자만 여자라 학기 초반에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플랫폼메이트들 덕분에 금방 적응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플랫폼하우스를 구한다면 동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욱 편하고 적응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p> <p>제가 사는 곳은 바다(Las canteras)까지 걸어서 7분, 맥도날드는 2분, 24시간 편의점 1분으로 정말 좋은 위치적 조건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버스정류장부터 자전거대여소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무척 편리했습니다.</p> <p>플랫폼하우스의 장점은 하우스파티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 친구를 초대해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온 플랫폼메이트들 덕분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 청소, 요리 등으로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초반에는 스페인 음식, 유럽 음식등을 사먹었지만 스페인 자체가 외식비가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재료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20유로면 3일에서 5일치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먹기만 해도 많은 돈이 절약되었습니다. 참고로 학식은 그다지 저렴하지도 맛있지도 않아 잘 애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식집, 일식집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해 잘 사먹지 않았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GUAGUA라고 버스로 통학했습니다. 학생전용카드(TT 카드)를 이용하면 월 28유로에 80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전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 엠빠드로나미엔또, 학교입학허가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란카나리아 내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에는 GLOBAL BUS를 이용했습니다. GUAGUA보다는 비싼 가격입니다.</p> <p>카나리아 아일랜드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스페인 본토로 여행을 갈 때 항공료를 75%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항공사마다 법규가 바꿨다고 하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인천 - 그란카나리아) 65만원 (로마(여행) - 인천) 60만원	핀에어 이용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해외여행자보험 (약 10만원) 자매대학에서 보험 구매를 권유했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숙소	월 350유로 (47만원)	
식비	월 250유로 (33만원)	집에서 요리할 경우 더욱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	월 28유로 (3만 7천원)	TT카드 이용
책값	X	PPT 수업이 대체로 많아 아이패드 지참
여행	월 150만원	매 달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 숙소 값으로 대략 150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란카나리아 거주증이 있으면 스페인 본토 비행기값이 75%할인)
핸드폰 통신비	월 10유로 (약 2만원)	월 10유로로 5GB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회사는 보다폰이었습니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모든 교환학생이 그렇듯이 저 또한 언어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간혹 생활을 하면서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를 쓰면 스페인 사람들은 불쾌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문과 간단한 의사소통(적어도 A2 레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페인어를 공부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란카나리아에는 한국마트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카나리아에 오기 전에 먹고 싶은 한국음식을 모두 먹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란카나리아의 겨울은 매우 춥지는 않지만 쌀쌀한 정도로 전기장판이 있으면 안락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썹칼, 에어퍼프 등 메이크업 도구들이 한국제품의 질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많이 구매해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스페인에는 크리스마스 전부터 연말까지 큰 할인행사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행사와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옷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그란 카나리아는 작은 섬이다 보니 동양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유럽에 비해) 인종차별이 심한 것은 아니나 가끔 마트 줄을 서있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 갑자기 다가와 볼을 만져보고 사진을 찍는 등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 생활 초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격체보다는 신기한 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더지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되는 깡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정말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란카나리아, 라스팔마스의 생활은 여유 그 자체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다로 가 썬탠을 하고 수영을 했습니다. 또한, 축구를 볼 수 있는 야외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유럽챔스 경기를 보는 것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스팔마스에는 목요일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파티가 있습니다. 베게타(Vegueta)의 큰 골목에서 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1시정도가 되면 같이 클럽으로 가 유흥을 즐깁니다. 정말 재미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영국, 폴란드, 이태리,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열정의 나라 스페인답게 축제 또한 길고 많아 많은 유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 CARNAVAL은 한달 내내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분장도 하고 남부에 위치한 마스팔로마스에 놀러가 까르나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휴일이 존재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에 맞춰 유럽여행을 자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유럽국가들을 여행했는데 정말 매번 빠짐없이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칭챙총, 곤니치와는 기본적으로 여행하는 매 순간 들었으며 병, 폭죽, 쓰레기를 던지거나 비행기 타는 내내 눈을 찌는 행위를 하는 등 다양하고 심각한 인종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유럽생활 초반에는 아시아인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사실이 죄라도 되나 싫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인종차별을 당해 학기가 빨리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무더지게 되고 인종차별주의자에게 맞대응 할 수 있는 노련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에 가장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시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는 한국대사관이 딱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란카나리아 라스팔마스에 위치합니다. 영사관분들께서 교환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잘 챙겨주십니다. 매 달 대사관에서 영사관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 생활이 어떤지 계속해서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국제교류처 직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영사관분들께 하자마자 영사관분들께서 학교에 전화를 해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유럽생활이 이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나리아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웃고 인사하는 매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뛰어오는 등 카나리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매너는 정말 피곤할 정도로 좋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저에게 색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란카나리아 생활을 통하여 제가 얻은 것은 "사람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법,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바쁘게 살지 않는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몸이 아프지 않아도 하루를 보람차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란카나리아 생활 이후 생긴 제 취미는 서핑, 수영도 아닌 오늘의 노을을 챙겨보는 것 입니다. 그만큼 여유롭게 하루를 소중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때처럼 완벽한 여유를 즐기며 살 수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확실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금방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란카나리아의 흐한 노을



ULPGC Tafira캠퍼스 운동장



마스팔로마스 DUNAS 사막



CARNAVAL 축제를 즐기는 나



TAPAS NIGHT



플랫메이트들과 함께